

# ‘3개의 전쟁’ 기로에 선 세계...서방·중동 ‘자제’ 한목소리

### 이스라엘 ‘33년만의 본토 피격’에 발칵 바이든, 반격에 반대...중동 ‘확전’ 차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전선이 고조되자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이어 또 다른 전쟁이 추가로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동 주요 국가들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이스라엘군 등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다음 날 새벽에 걸쳐 약 300기의 자폭 드론과 탄도·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 공습을 감행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들을 살해한 데 대한 무력 보복이다. 양국의 직접 충돌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이다.

◇재보복 버는 이스라엘...시기·방법 저울질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대부분 방어해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자국 본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스라엘이 본토를 공격받은 것은 1991년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스킨드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한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 전쟁을 일으키면서 ‘진미’ 국가인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아보냈다.

이번 공격에 즉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뚜렷한 원칙을 결정했다”며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누구든 해칠 것”이라며 공습 초기부터 재보복 방침을 밝혔다.



이스라엘 공격에 환호하는 이란인들 14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소식을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다만 대응 시기와 강도를 높고는 의견이 엇갈려 네타냐후 총리는 조만간 전시내각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미국은 반격에 반대...신중해야’ 이스라엘 제동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할 경우 양국이 계속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더 큰 규

모의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성명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발표에 앞서 네타냐후 총리와 한 통화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긴장 고조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동지역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조율에도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중동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례 전화 협의를 갖고 ‘확전 방지’를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지만 사태의 악화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트럼프 컴백’에 불안?...“중국으로 다시 눈돌리는 유럽”

### “일부 유럽 국가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더 걱정” 솔츠 독일 총리, 사흘간 중국 방문...“무역관계 초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부진한 경기 회복 등으로 유럽 일부 국가와 중국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다.

중국이 먼저 ‘유럽 구애’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5개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중국 여행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아일랜드도 이를 확대했다.

또 중국은 지난해 중단했던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2018년 취한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자동차와 첨단 산업기계 등 서구의 전 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들과 경쟁 심화로 빨이난 유럽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소 로동그룹의 유럽·중

국 분석가인 노아 바किन은 “EU가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반면 독일과 같은 유럽의 일부 대국은 우크라이나나 트럼프 문제 등에 더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EU는 최근 전기차부터 풍력터빈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진출한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에 대한 무역 보복도 개의치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 큰 걱정거리라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당장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고 유럽에 보다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을 뒤따를 필요가 있는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의 베른트 웨스트팔 의원은 “독일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국가”라며 “우리의 부는 국제시장 접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1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해 현지 3개 도시를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은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에서는 솔츠 총리의 이번 방문을 유럽과의 무역 긴장 고조를 완화하고 중국을 겨냥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약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은 중국산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는 EU 계획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독일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고 싶지 않다”며 “중국과 무역을 늘리는 동시에 다각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세계 최고령 삼쌍둥이 62세로 별세

### ‘트랜스젠더’ 커밍아웃...자매에서 남매로

세계 최고령 삼쌍둥이인 조지 샤펀과 로리 샤펀이 62세로 별세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61년 9월 18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여성 삼쌍둥이로 태어난 이들은 두 몸을 가졌지만, 두개골이 연결돼 있어 뇌와 필수 혈관 30%를 공유했다.

이들은 삼쌍둥이 중에서도 2-6%를 차지하는 가장 희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미국 NBC 방송은 전했다.

조지와 로리는 나란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의 한 병원에서 6년간 일했다.

그 뒤 이들은 조지가 컨트리 가수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병원을 그만두고 함께 독일, 일본 등지로 공연 투어를 떠났다.

이들은 생전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로리는 1997년 다큐멘터리에서 “서로에게서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로리는 조지가 컨트리 음악 연습을 할 때면 함께 음악실에 조용히 머물며 동생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2007년에는 조지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히면서 이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동성이지만 다른 젠더를 가진 첫 삼쌍둥이로 기록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러, 미일 밀착 견제? 쿠릴열도 주변 항행 금지

日 “고유 영토” 주장하며 항의

러시아가 11-17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 4개 섬 주변에서 자국 선박 이외 선박의 항행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의 조치 발령이 틀날인 지난 12일 주일 러시아대사관에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해통

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안국이 자국 영해라면 무해통항권을 정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일본을 견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   |   |  |   |   |   |
|---|---|--|---|---|---|
|  |  |  |  |  |   |
| <b>NEW</b> 우라칸 SH-100   | 우라칸 SH-200  | 블리스 GOLD   | 마스터즈 CH-1500  | 마스터즈 CH-2000  |   |
| SPECIFICATION   |   |  |   |   |   |
| 사양  | 길이:85cm, 무게:530g (±10g)   | 사양   | 길이:85cm, 무게:530g (±10g)   | 사양  | 길이:85cm, 무게:530g (±10g)                 |
| 샤프트   | 고탄성 초경량 카본  | 샤프트  | 고탄성 초경량 카본  | 샤프트   | 고탄성 초경량 카본                              |
| 그립  | 곡선형 논슬립 그립  | 그립   | 곡선형 논슬립 그립  | 그립  |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
| 소재  |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br>페이스:고탄성 카본<br>숄:신주(황동)   | 소재   |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br>페이스:고탄성 카본<br>숄:신주(황동)   | 소재  |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br>페이스:고탄성 카본<br>숄:신주(황동) |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